

# 한국문학 빛낸 목포출신 거목들을 만나다

목포문학박람회, 북교동 일대 17일까지 120개 프로그램

‘4인4색문학제’·‘김지하 특별전’ 등 지역 작가 집중 조명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문학을 주제로 하는 ‘2023 목포문학박람회’가 한국문학을 빛낸 목포 출신 한국 문학의 거목들을 집중 조명한다.

목포시에 따르면 올해 목포문학박람회가 ‘작가를 꿈꾸는 문학유토피아’라는 슬로건으로 14일부터 17일까지 목포문학관 일대, 북교동 일대에서 전시, 행사, 공연 등 120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4일 한국 근대문학 선구자를 대거 배출한 목포문학의 태생지인 북교동(자범석길) 일원에서 ‘골목길 문학관’으로 문을 연다.

이어 목포문학관 일대에서는 오는 1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문학과 다양한 융복합 콘텐츠를 선보이는 이색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올해 ‘4인4색 문학제’는 16일 ‘김우진·김현의 날’, 17일 ‘차범석·박화성의 날’ 등으로 구성된 작

가 조명 프로그램으로 거목들의 세계로 안내한다.

또 목포문학박람회 주제관에서는 오는 15일 오후 2시 30분 시인 김지하의 삶과 미학세계를 엿볼 수 있는 ‘나의문화유산답사기’의 저자 유홍준 교수의 강연과 김지하의 시를 소리공연으로 보여줄 임진택 소리 공연이 준비돼 있다.

행사가진 동안에는 김지하 특별전이 열리는데, 15일에는 유홍준 교수가 직접 김지하의 작품에 대한 해설을 맡는다.

16일 ‘김우진·김현의 날’에는 김우진 문학제와 김현 문학축전이 개최된다.

남교소극장에서 열리는 ‘김우진 문학제’는 김우진 희곡, 시와, 산문 등의 작품에 대한 연구 발표가

진행되며, 목포를 배경으로 한 김우진의 희곡 ‘이영녀’의 연출가와 배우가 출연해 김우진 연극제작자 좌담회를 갖는다.

목포문학관에서 열리는 ‘김현문학축전’은 ‘김현으로부터 한결함’이란 주제로 김현 비평에 대한 심포지엄, 시노래 콘서트, 김현문학아카이브전, 김현 문학카페 등이 열린다.

17일 ‘차범석·박화성의 날’에는 차범석학술대회와 박화성문학페스티벌이 개최된다.

남교소극장에서 열리는 차범석학술대회는 호남극예술 학술대회, 내가 만난 차범석 강연이 진행된다.

또한 북교동 일대에서는 차범석의 전일기 이야기(15일 오후 7시), 박화성의 노래가 있는 차범

석 여행(16일 오후 6시 30분) 토크와 뮤지컬(박혜미, 박건형, 오혜원)이 진행된다.

남교 소극장 창고에서는 오는 16일과 17일 오후 6시 차범석 연극 ‘별은 밤마다’가 공연된다.

‘박화성 문학페스티벌’에는 박화성의 작품 서사 등 작품세계 조명 학술대회, 정명여중학생들과 함께하는 내가 읽은 박화성 토크 등이 펼쳐진다.

목포시 관계자는 “한국문학을 빛낸 목포출신 거목을 집중 조명해보는 4인4색문학제 등 다양한 연극, 뮤지컬 공연 등을 통해 예향 그리고 문향으로서 목포를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정봉선 기자 jbs@kwangju.co.kr

## ‘최저 월 1만원’ 신안군 임대주택 경쟁률 2대 1



압해읍 동서리 연립주택 전경.



신안군은 지난 6일 공개 추첨 방식으로 ‘압해읍 임대주택’ 입주민 19가구를 선발했다. <신안군 제공>

압해읍 주택사업 대상자 19가구 선발...최장 4년 거주

최저 월 1만원에 집을 빌릴 수 있는 신안군 임대주택 공개 모집이 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3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7월 진행된 ‘압해읍 임대주택 지원사업’ 대상자 19명 모집에 38명이 지원해 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신안군은 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지역 거주자(무주택)가 신안에 전입하는 조건으로 압해읍 임대주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보증금 300만원과 한 달 최저 1만원에서 15만원까지 저렴한 임차료를 내면 기본 2년, 최장 4년까지 이곳에 머물 수 있다.

신혼부부·미성년 자녀가 있는 세대는 월 1만원의 임차료만 내면 된다.

39세 이하는 월 7만원, 49세 이하는 월 10만원,

50세 이상은 월 15만원 등으로 임차료를 차등 설정했다.

해당 주택은 압해읍 동서리에 5년 전 지어진 30평형(99㎡) 연립주택(델리스파크)이다.

신안군청이 차로 8분 거리, 압해읍사무소는 1분 거리에 있다.

입주민 19명을 뽑는 이번 공모에는 청년 16명을 포함해 총 38명이 응모했다.

신안군은 이달 초 공개 추첨 방식으로, 서류 전형 등을 통과한 27명 가운데 임대주택에 입주할 19명을 뽑았다.

신혼부부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세대는 3가구가 뽑혔고, 39세 이하 14가구, 49세 이하 1가구, 50세 이상 1가구 등이 행운의 주인공이 됐다.

이들은 오는 18일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임수경 귀촌지원센터 주무관은 “목포와 광주, 제주, 대전 등 각지에서 신안에 전입할 예정”이라며 “새 입주민을 받기 전에 해당 주택을 청소하고 기본적인 보수를 마쳤다”고 말했다.

입주자들은 입주 한 달 이내에 전입신고와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안군은 귀촌하는 청년층에 어선임대사업과 신안군이 주력 산업으로 내건 개체(날개)굴 양식 사업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임대주택 모집 결과 청년층 지원자가 많아 젊은 층에 주거 안정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보인다”며 “청년들이 돌아오는 신안, 살고 싶은 신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tee@

## “전국체전 성공 기원” 남악중앙공원에 꽃탑

무안군, 국화·초화류 등 570그루 심어...음악분수 등 볼거리 제공



무안군은 오는 10월과 11월에 열릴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을 홍보하기 위해 남악중앙공원에 대형 꽃탑 조형물(사진)을 설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남악중앙공원은 남악지구 주민들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이다. 무안군은 전국체전 개최식과 폐회식이 열리는 목포를 오가는 이들에게 대회를 홍보하는 효과를 노렸다.

이번에 설치한 꽃탑은 길이 6m·높이 4m의 구조물이다. 국화와 초화류 570그루를 심어 대형 조형물을 꾸몄다.

무안군은 전국체전 개최를 앞두고 남악중앙공원에 국화 전시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곳에서는 거리 공연과 음악분수 등을 통해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대형 꽃탑 조형물이 전국체전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열띤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기를 바란다”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 진도서 ‘불타는 금요일’

내일 ‘찐나부네 레트로나이트’ 남문로 상권 활성화 ‘복고 특집’

진도군이 ‘불타는 금요일’을 책임질 ‘찐나부네 레트로나이트’ 행사를 15일 저녁에 연다.

‘찐나부네 레트로나이트’는 오는 15일 오후 6시부터 진도를 아리단길 일원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진도 상권 르네상스 ‘흥나는 거리 조성’ 사업의 하나로 마련된다.

진도읍 남문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5월에는 ‘5월은 찐나부네’, 7월 ‘찐나부네 워터파크’와 8월 ‘찐나부네 썸머나이트’ 등을 열었다.

올해 네 번째 열리는 행사는 옛 추억을 되살리는 ‘복고특집’으로 진행한다.

‘7090 포크송 공연’ ‘추억의 달고나’ ‘1분 캐리커처(만화)’ ‘사주·타로 체험’ ‘아트마켓’ 등이 행사장 곳곳에서 열린다. 이외 다양한 즐길 거리와 먹거리 야시장도 운영한다. 행사 참가자 가운데는 행사장에서 쓸 수 있는 이용권을 증정한다.

진도군 경제에너지과 관계자는 “집체한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안전하고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찐나부네 레트로나이트로 잔잔한 향수에 젖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이중수 기자 js7777@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영광군, 33개 사업 국비 509억원 확보

정부 긴급 기조 속 성과...미반영 사업 대응 방안 논의도

영광군이 정부의 긴급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를 상당 규모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영광군은 지난 11~12일 이틀간 실과 소별로 ‘2024년 국비 확보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보고회에선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미반영 사업의 향후 대응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영광군 주요 현안 사업은 ‘친환경 부품의 재활용 재제조 전환 기술개발 40억원’, ‘법정정수장 개량사업 30억원’ 등 총 33개 사업, 509억원 규모다.

이 같은 성과는 각종만 영광군수가 국비 확보를 위해 전남도, 중앙부처,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지속 방문해 건의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강 군수는 지난달 18일 성일중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을 만나 ‘영광송림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3억원’을 비롯해 ‘홍농 성산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0억원’을 건의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영광군은 정부의 긴급재정 기조로 국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과 적극 대응해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 ‘영암몰’ 추석 앞 최대 30% 할인전

한우·쌀·과일·장어 등 22일까지...지역사랑상품권 결제 가능

영암군이 운영하는 쇼핑몰 ‘영암몰’이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22일까지 최대 30% 할인전을 펼친다.

할인 행사 ‘풍성한 한가위! 추석 선물 대잔치’에서는 농특산물은 20%, 추석 선물 꾸러미는 10% 추가 할인율이 적용된다.

영암몰에서는 매실을 먹여 키운 ‘매력한우’와 월출산 맥반석 물과 재배한 유기농 ‘달마지쌀’, 대표 특산물인 무화과, 고구마, 사인머스켓, 배, 멜론, 장어 등을 만날 수 있다.

영암군은 지난날 영암몰에서도 지역화폐인 영암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결제 체계를 개선했다.

영암몰은 지난 2021년 4월 문을 열었으며, 연 매출 36억원을 올리고 있다.

영암몰 구매 고객에게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영암농부남생이’를 무료로 나눠 준다.

‘영암농부남생이’는 올해 영암군이 새롭게 개발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이름이자 상징물이다.

영암몰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는 선착순 2만 5000명은 30일 동안 무료로 16종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다.

영암군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영암F1국제자동차경주장을 무대로 1시간 동안 생방송 판매(라이브커머스)도 진행한다. 이날 방송에서는 ‘영암 신고매 선물’ ‘영암 매력한우 선물’ 등을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한가위를 맞아 영암 농특산물을 알릴 다양한 기회를 준비했으니 전국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과 영암몰 방문을 바란다”며 “영암몰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로, 영암 농민의 정성이 고스란히 소비자의 가정과 식탁으로 전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원 기자 jbh@kwangju.co.kr

## 목포시, 전국체전 대비 식품업소 위생 점검

경기장 주변 200여 곳 22일까지...식중독 예방 교육도



목포시가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을 대비해 선수단 및 관광객이 주로 찾는 경기장, 숙소 주변 등의 식품점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 위생점검(사진)에 나선다.

점검 기간은 오는 22일까지 10일간이다. 점검 대상은 전국체전기간 동안 선수단 및 경기 관람객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장, 숙박업소 주변 등에 위치한 식품점업소 200여 개소다.

주요 점검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여부 ▲가격표 준수이행사항 ▲원재료 관리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관리 ▲시설기준 관리

▲건강진단 및 위생 교육 등이다.

점검결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진열 및 판매 여부, 개인위생 관리, 보존기준 준수, 위생적 관리 여부 등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적법한 행정처분도 단행할 계획이다. 또 식중독 예방 현장교육과 서비스 현장교육 등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를 방문하는 선수단과 체전관계자,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목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식품점업소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 moon@kwangju.co.kr